

ASAN SPECIAL LECTURE



What Money Can't Buy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 마이클 샌델

MICHAEL J. SANDEL

A S A N
SPECIAL
LECTURE

ASAN SPECIAL LECTURE

What Money Can't Buy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 마이클 샌델



MICHAEL J. SANDEL



아 산 정 책 연 구 원 특 별 강 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2012.06.01

Speaker
마이클 샌델



“ 마이클 샌델

감사합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한국말로). 우리는 단순한 강의
가 아닌, 철학 강의를 위해 여기에 모였습니다. 이것은 또한 공개 토론이
기도 합니다. 저와 함께 토론에 참가할 준비가 됐습니까, 여러분? 그렇다
면 이제 오늘 밤 우리가 여기서 함께하는 강의는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철학 강의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요 현안에 대한 민주적 담론이
어떤 것인가를 한국과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민주적 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저와 함께 토론에 참가합시다. ”



오늘 밤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 어려운 문제를 제시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니라, 논쟁을 하는 정신 자세와 서로 존중하는 의지입니다. 오늘 밤의 주제는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즉 “우리 사회에서 돈과 시장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거의 모든 것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좋은 삶을 살기 위한 특정한 가치, 특정한 측면은 돈으로 살 수 없거나 사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날 어느 때보다 더 시급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고, 그만큼 돈과 시장의 가치가 재화의 영역을 벗어나 삶의 영역으로 침투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성공을 만끽한 민주 사회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시장 경제에서 시장 사회로 옮겨 왔습니다. 시장 경제는 생산적인 활동을 조직하기 위한 가치 있고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시장 경제는 한국을 포함해 세계 여러 나라에 번영, 경제 성장, 풍요로움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성취였습니다.

반면 시장 사회는 다릅니다. 시장 사회는 모든 것이 판매되는 곳입니다.

시장 사회는 화폐와 시장 가치가 삶, 정체성, 개인적 관계, 가정 생활, 건강, 교육, 시민 생활 같은 모든 것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형태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민주 사회에 사는 우리는 돈과 시장의 적합한 역할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같은 이유로 오늘 밤 토론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매력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상품에 매기는 가치에 따라 그 상품을 사고팔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인기 있는 이벤트의 티켓을 온라인에서 사고팔아 차익을 남깁니다. 매우 인기 있는 레이디 가가의 콘서트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중 레이디 가가 콘서트의 암표를 온라인에서 거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몇 분입니까? 몇 분이 찬성하겠습니까? 손을 들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반대하시는 분은 몇 분입니까? 레이디 가가 콘서트의 암표를 거래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몇 분입니까? 이도 저도 아닌 분들이 있군요. 아마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레이디 가가 콘서트의 암표 거래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의 이야기부터 들어 봅시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어느 분이 논의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질문에 답하려면 일어나세요. 어느 분이든 반대 의사를 밝히고, 왜 잘못된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작할 용기가 있는 분은 일어나서 이름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중 1 훌륭한 강의에 참가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레이디 가가 콘서트의 암표를 사지 않는 이유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레이디 가가는 잘 알려져 있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경우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암표를 사고파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암표가 100원이나, 혹은 1,000원이라도 저는 사지 않을 것입니다. 가격은 문제가 아닙니다.

마이클 샌델 질문을 하나 하죠. 레이디 가가 콘서트의 암표를 사는 것이 잘못이라는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이 암표를 팔지 않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청중 1 원칙에 대한 것이지, 저의 개인적 행동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마이클 샌델 이제 레이디 가가 콘서트의 암표를 거래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청중 2 티켓을 팔고 싶다면 팔아도 좋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레이디 가가 콘서트에 참가하는 것도, 그리고 티켓을 살 수 있다면 사서 파는 것도 부적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이클 샌델 좋은 답변입니다. 록 콘서트는 엔터테인먼트이기 때문에 레이디 가가 콘서트의 암표를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 당신의 생각이지요? 좋습니다. 사람들이 티켓을 사고팔 수 있는 다른 곳의 예를 들어 봅시다. 중국에 갔을 때 한 가지 일을 알게 됐습니다. 베이징 외곽에 있는 병원에는 의료 시설이 부족한 먼 시골 지역 사람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약과 진료를 위해 찾아옵니다. 몇몇 우수한 베이징 병원의 대기실에는 사람들이 매우 긴 줄을 늘어섭니다. 사람들은 예약 티켓을 받기 위해 때로 밤을 새우면서 며칠씩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러자 장사꾼들이 노숙자 같은 사람을 고용해 창구에서 줄을 서서 예약 티켓을 받게 하고, 예약 티켓을 얻기 위해 지불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받고 티켓을 팔아 이익을 남깁니다.

이제 이 같은 경우의 티켓 거래에 대해 투표를 해 봅시다. 의사의 예약 티켓을 거래하는 것에 반대하시는 분은 몇 분입니까?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몇 분입니까? 손을 들어 주세요. 그리고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몇 분입니까? 좋습니다. 먼저 예약 티켓의 거래에 반대하는 분의 의견부터 들어 봅시다. 누가 이유를 말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른쪽 거기서 계시는 여성분.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해 주세요.

청중 3 저는 레이디 가가 콘서트의 티켓조차 거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엔터테인먼트는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병원 예약 티켓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사실 기본적인 인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 사회가 수호하려는

것입니다.

마이클 샌델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료는 기본적인 인권이기 때문에 의사의 예약 티켓 거래에 반대한다는 매우 확고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레이디가가 콘서트의 티켓 거래도 반대했습니다. 레이디가가 콘서트에 가는 것도 역시 기본적 인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중 3 그것은 사실 우리가 무엇을 향유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행복추구권이 있습니다. 미국 헌법에도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레이디가가 콘서트에 가고 싶다면, 가서 즐길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마이클 샌델 그녀가 돈 받고 티켓을 팔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청중 3 아니요, 그것은 그녀의 삶의 방식입니다.

마이클 샌델 만약 티켓을 살 능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들의 인권이 침해된 것인가요?

청중 3 그것은 지불능력과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만, 암표 가격이 레이디가가가 매긴 것보다 비싸다면 상황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마이클 샌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록 콘서트나 레이디가가 콘서트 티켓의 거래는 괜찮지만, 예약 티켓의 거래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의 생각을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한 견해를 가진 분 중에서 누가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중 4 록 콘서트에 갈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기본권이 아니기 때문에 록 콘서트 암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이고, 암표를 사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료 시설의 티켓 거래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티켓을 사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티켓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엄청난 가격을 제시하더라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이클 샌델 불가피성을 근거로 의사의 진료 행위와 록 콘서트에 가는 것을 도덕적으로 구분해 주었습니다. 의료 행위가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에 티켓 거래는 있을 수 없다고 했는데, 제가 올바르게 이해한 것입니까? 좋습니다. 이제 이러한 구분은 시장의 적합성 논쟁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상품의 성격을 규명해야 합니다. 재화 획득이 불가피성의 문제인가, 인간 기본권 또는 단순한 즐거움의 문제인가, 선택의 문제인가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록 콘서트와 병원 예약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란이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철학 강의 티켓의 암거래는 공정하거나, 정당하거나, 또는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분이 그렇다고 대답할까요? 여기에 오신 분 중 온라인에서 티켓을 사신 분은 몇 분입니까? 아니라고 대답할 분은 몇 분입니까? 이 중에서 이유를 설명할 분이 있습니까? 왜 반대하십니까?

청중 5 그 질문에 핵심 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학자들은 시장이 가격을 통제하도록 하면, 자연스럽게 정당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장악하거나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면, 사회적 불평등이 조장되고 가진 자는 덜 가진 자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실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마이클 샌델 그렇다면 록 콘서트의 암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었습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가난한 사람이 티켓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까?

청중 5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줄을 서서 사는 것이 온라인에서 사는 것보다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클 샌델 모든 상품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시장이 재화의 분배에는 절대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거의 모든 것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좋은 삶을 살기 위한 특정한 가치, 특정한 측면은 돈으로 살 수 없거나 사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청중 5 공정하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암시장에서 비싼 가격으로 모든 상품을 파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클 샌델 좋습니다. 생각을 달리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시장의 논리를 어떤 경우에는 적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앞쪽에 서 계신 여성분, 말씀해 주시지요.

청중 6 어떤 물질적 재화는 시장에서의 거래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 이 마이크는 우리가 시장에서 팔 수 있는 것입니다.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 경제에서는 공공재와는 달리 개인이 내다 파는 많은 물질적 재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수님이 언급한 암시장입니다. 중국에는 장기 암시장이 있는데, 장기는 개인이 거래해서는 안 되는 재화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고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팔려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 합니다.

마이클 샌델 좋습니다. 그렇다면 상품의 시장 적합성 여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청중 6 그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오늘 이 철학 강연에서 가장 큰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클 샌델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견해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 거래는 시장에 부적합하다는 것인데, 록 콘서트는 어떤가요?

청중 6 그것은 시장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클 샌델 그렇다면, 진료 받는 행위는 어떤가요?

청중 6 그것은 시장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암거래나 암시장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마이클 샌델 그렇다면, 철학 강연의 티켓은 어떤가요?

청중 6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이 철학 강의의 성격을 생각한다면, 강의 티켓은 암시장이나 시장 경제에 맡겨져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믿습니다. 물론 돈으로 살 수 있는 재화도 많고, 살 수 없는 재화도 많습니다. 이 강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 속합니다. 돈으로 사서는 안 됩니다.

마이클 샌델 좋습니다. 그러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살 수 없는 것을 구분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패턴이나 원칙이 떠오르는지요? 장기는 신체의 한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청중 6 예, 아까 앞에서 이미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장기 문제는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질병 치료를 위해 쓰여야 합니다.

마이클 샌델 그렇다면 교육 받을 기회는 어떤가요? 철학 강의는 일종의 교육입니다.

청중 6 예, 저도 교육은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시장에 책임지라고 맡겨서는 안 됩니다.

마이클 샌델 그렇지만 록 콘서트, 엔터테인먼트, 물질적 재화 등은 시장에 맡겨도 괜찮다는 것이죠?

청중 6 사치품으로 생각되는 상품들은 시장에 맡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클 샌델 좋습니다.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는 재화와 판매될 수 없고 다른 가치에 의해 다뤄져야 하는 재화를 구별하는 첫 시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도움이 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이 원칙을 검증하기 위해 이제 좀 까다로운 사례를 들어 봅시다.

최고의 대학에 입학하려는 능력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연세대학교 총장과 같이 여러분이 훌륭한 대학의 총장이고 뛰어난 입학 희망자들이 많

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학도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입학 정원의 10%를 가장 많은 돈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팔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90%의 정원은 최고의 자격을 갖춘 순서대로 합격자를 뽑습니다. 나머지 10%는 능력순은 아니지만 교육과 졸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의지가 강해서 실패하지 않을 합격자들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대학에 내는 기부금의 규모에 따라 학생들을 선택할 것입니다.

투표를 해 봅시다. 여러분들 중에서 대학 총장으로서 부유한 기부자의 자녀를 받아들이기 위해 입학 정원의 10%를 판매하는 제도에 동의하는 분은 몇 명입니까? 또 반대하는 분은 몇 명입니까? 대다수는 팔지 않을 것이고, 극히 소수만 팔 것입니다. 팔지 않을 사람부터 시작해 보죠. 여러분 중에 누가 반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일어나서 마이크를 잡으세요.

청중 7 입학 정원의 10퍼센트를 실제로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입학 정원 판매의 시장 적합성 문제는 해당 재화의 원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학의 원래 목적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이클 샌델 정원의 10%에 해당하는 조금 뒤쳐진 학생들에게도 교육은 제

공됩니다.

청중 7 하지만 뒤쳐진 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이 부유함과 부모의 지불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안 됩니다. 학생의 자발성과 학습을 위한 열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마이클 샌델 그것이 대학이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청중 7 예.

마이클 샌델 그리고 돈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은 대학의 가치를 퇴색시킨다고 보십니까?

청중 7 예, 그렇습니다. 대학의 목적은 이윤 창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학의 원래 목적이 우선되어야 하고,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도 우선 순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클 샌델 잘 하셨습니다. 아직 앉지 마시고 계속 마이크를 들고 주세요. 그럼 이 논리에 반대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 보죠. 기부금 입학제에 동의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겠습니다.

청중 8 앞의 분(청중 7)이 대학 교육의 목적에 대해 언급했습니다만, 대학이 10%의 학생들로부터 기부금을 받는다면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부금을 받는 것이 대학 교육의 기본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클 샌델 좋습니다. 그럼 두 분이 서로 대화를 해 보시죠.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하신 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분에게 직접 말해 보시죠.

청중 7 말씀 드렸듯이, 대학이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자금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양질의 교육을 원하는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의 원래 목적을 넘어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이클 샌델 그렇다면 남자분, 이 의견에 대해 직접 여자분에게 설명해 주시죠. 여자분을 설득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청중 8 좋습니다. 10%는 그렇게 큰 수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원의 30%, 혹은 40%이면 도입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10%는 적절한 수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이 이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중 7 왜 10%입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10%면 좋다고 결정하는 당신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11%나 15%는 어떻습니까? 괜찮다고 여기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청중 8 물론 이 해당 수치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겠죠.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10%는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마이클 샌델 그런데 여자분은 당신에게 원칙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0%에는 반대하시는 거죠?

청중 8 50%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이클 샌델 너무 많나요?

청중 8 예.

마이클 샌델 하지만 10%보다 50%를 파는 것이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교육을 위한 것이라고 가정하면, 50%도 좋은 목적에 쓰일 것입니다.

청중 8 그러나 50%는 너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제도에 반대할 것입니다.

마이클 샌델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10%에도 반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중 8 대학이 적절한 퍼센트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클 샌델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얻고자 하는 답은 어떤 여론이어야 하고, 사람들을 어떤 방향으로 설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50% 기부금 입학제를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에게 설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하세요?

청중 8 예.

마이클 샌델 50%에 찬성하시죠.

청중 8 사람들이 50%에 반대만 안 하면,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클 샌델 그리고 사람들이 100%에도 반대하지 않는다면?

청중 8 미안합니다.

마이클 샌델 잘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원칙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대학 기부금 입학제 도입 여부에 대해 우리가 확인한 한 가지 원칙은 기부금 입학제가 대학의 목적과 관계가 있으며, 그러한 목적을 해치거나 약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반대

“

우리는 해당 재화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해당 재화의 특성이 인간의 기본권과 연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즐거움이 원천인 선택의 문제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의견과는 다른 측면의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 통로 옆에 계신 분, 일어나 주시죠.

청중 9 만약에 대학이 입학 정원을 판매하면, 부유한 사람만이 이것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클 샌델 좋습니다. 다른 이유이군요. 공정성에 대한 주장입니다. 많은 돈을 기부할 수 없는 가정의 재능 있는 학생에게는 불공정한 것입니까?

청중 8 네, 불공정합니다. 뭐랄까, 제 논리력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마이클 샌델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종종 일어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토론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정말 잘 하셨습니다.

이번 토론은 특정 재화의 거래를 위해 시장을 이용하는 데 반대하는 두 가지의 다른 견해를 이끌어 냈습니다. 대학 교육의 경우 기부금 입학제에 반대하는 두 가지 주장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주장은 자신이나 부모가 큰 돈을 기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공정성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 기부금 입학제가 대학 교육의 목적을 침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상황에서 시장에 반대하는 두 가지 주장을 공정성 논리와 침

해 논리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침해 논리는 재화의 용도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또 대학 교육의 경우 기부금 입학제가 대학의 존재 이유를 침해하거나 약화시키는지의 여부에 대해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에 대한 다른 예를 들어 보겠는데, 대학 입학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현금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회적 성취를 위해 돈을 지급하는 현금 인센티브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도시에는 불리한 환경으로 인해 학습에서 뒤쳐진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한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몇몇 학교는 금전 보상, 현금 인센티브 같은 방식으로 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좋은 점수를 받거나 일정한 수의 책을 읽으면 돈을 받게 됩니다. 이 방식을 뉴욕, 시카고, 워싱턴 등에서 도입했습니다. 텍사스 주 델러스에서는 읽는 책 한 권당 2달러를 어린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방침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시다. 여러분이 불우한 환경 출신의 뒤쳐진 학생들이 있는 교육구의 책임자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학생들에게 돈을 주자고 제안할 것입니다. 가령 A학점은 50달러, B학점은 40달러, 그리고 읽는 책 한 권당 2달러 등.

학교를 운영한다면 여러분 중에 몇 분이 이 방침에 찬성하거나, 적어도 시도하는 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몇 분이 반대하시겠습니까? 학생들에게

돈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시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몇 명입니까? 대다수는 반대하고 소수는 시도를 해 볼 것입니다. 반대 측 주장부터 들어 보죠. 이 토론에 참가하는 분은 영어나 한국어 중 편한 것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돈 지급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 예, 일어나세요.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청중 10 사실 개인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2학년 때까지 장학금으로 공부했는데, 3학년이 되면서 학점이 나빠 장학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장녀이고 부모님들은 저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현금 보상이 학생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에게조차 상당한 스트레스인데, 초등학생들에게는 오죽하겠습니까? 교육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클 샌델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교육 목적에 어긋나는 것일까요? 스트레스 유발은 별도로 하더라도 정확히 어떻게 교육 목적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중 10 사실 저는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성격을 감안하면, 저는 수학과 물리학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원 과정에서 그러한 과목들이 중점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안경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렌즈 가공을 공부해야만 합니다. 화학과 물리학을 공부하고 싶지만

렌즈 가공에 대부분의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교육의 목적에 위배됩니다.

마이클 샌델 이제 어린 학생들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권당 2달러를 주는 방침을 예로 들죠. 반대하는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청중 11 제 의견을 말씀 드려도 될까요? 독서는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한 것이고, 교육을 위한 것이고, 지식을 축적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책을 읽거나 좋은 점수를 받는 데 대해 돈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클 샌델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죠.

청중 11 왜냐하면 아이들은 교육을 받고 지식을 얻는 데 대한 꿈을 가져야 합니다. 단순히 책을 읽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책을 정말 이해했는지를 테스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이클 샌델 예, 그렇다면 이상적으로는 아이들이 독서에 대한, 그리고 배움에 대한 그 자체의 애정을 가지고 스스로 동기를 부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책을 읽는 아이들에게 돈을 주는 것에 대한 반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의 의견에 반박하실 분? 네, 말씀하시죠.

청중 12 어린이들이 현금 보상이 없으면 책을 안 읽게 될까 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처음에는 돈 받는 게 좋아서 책을 읽더라도, 나중에 크면 그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돈이 동기를 부여하고 책을 읽게 하는 것이죠.

마이클 샌델 그래서 현금 인센티브가 아이들로 하여금 책을 읽게 하고, 일단 책을 읽기 시작하면 습관이 형성돼 독서 그 자체를 좋아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돈을 주는 데 찬성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좋은 점수를 받거나 책을 읽으면 돈을 주셨습니까?

청중 12 돈보다는, 칭찬 스티커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 책을 읽으면 부모님은 스티커를 주셨습니다. 많은 스티커를 모으면 제가 좋아하는 선물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부모님이 한 일입니다. 처음에는 스티커 때문에 책을 읽기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독서를 좋아하는 법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에는 학교 도서관이 선정하는 최고의 독서가에 선정됐습니다. 저는 정말 독서를 좋아합니다.

마이클 샌델 네,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하셨네요. 이렇게 돈, 스티커, 선물 등을 아이들에게 주는 데 찬성하는 확고한 주장을 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반대 의견? 네, 선생님이시군요. 선생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일어나 주시죠. 선생님으로부터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선생님이 와 계십니다.

청중 13 저는 초등학교에 재직 중입니다. 정말 독특한 경험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받아쓰기나 간단한 시험에서 백 점을 받으면 파란 스티커를 줍니다. 그런데 스티커 주기를 멈추자 아이들도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동기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파란 스티커를 주면 선물을 받은 것처럼 좋아합니다. 공부의 목적이 공부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티커나 선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래의 목적을 위해 독서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아이들에게 주는 대신 학교 시설을 지원하거나 교사들을 교육시키는 데 써야 합니다.

마이클 샌델 예, 아이들에게 직접 현금을 주는 것을 반대하시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게 동기 부여로써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래서 보다 내적인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에도 선생님이 앉아 계신데요, 의견 말씀해 주시죠.

청중 14 사실 저는 교사는 아니고 그냥 손을 들고 있었는데요.

마이클 샌델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계속하시겠습니까?

청중 14 우리가 고려해야 될 주요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가정에 속해 있는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은 가정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파란색 스티커나 소액의 용돈을 버는 것은 교수님께서 제안한 방침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클 샌델 그러면 반대하시나요?

청중 14 예,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마이클 샌델 그러면 왜 반대하십니까?

청중 14 그러한 방침을 운영함으로써 아이들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책을 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클 샌델 잘못된 동기요?

청중 14 예, 가난한 가정을 위해 돈을 벌려고.

마이클 샌델 자, 그러면 앞서 말씀해 주신 분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이 가장 중요한 동기는 아닐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 돈을 줌으로써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고 향후에 책을 사랑하게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중 14 그분의 경험은 칭찬 스티커를 받았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마이클 샌델 스티커, 그러나 다음에는 선물.

청중 14 예, 하지만 현금은 단순한 선물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보상제도의 경우, 가난한 가정의 어린이들이 작은 선물 대신 돈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돈을 받는 것이 주요 목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클 샌델 알겠습니다. 주요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독서를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독서 자체를 좋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중 14 아이들이 위험한 규범을 형성할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마이클 샌델 위험한 규범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돈으로 인해서 위험한 규범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청중 14 예, 아이들의 궁극적인 행위 동기는 돈을 버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마이클 샌델 그러므로 당신이 생각하는 위험은 내적이고 본질적인 것이 아

니라, 주로 돈 때문에 독서하고 배우는 규범이나 태도가 길러진다는 것이군요. 현금 보상에 관한 토론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여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설문 중 하나가 다음과 같습니다. “과연 부모가 아이들에게 공부와 독서에 대해 돈을 주는 것이 적절한가?” 한국에서의 여론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찬성이 많았을까요? 반대가 많았을까요? 의견이 좀 갈렸는데, 44%가 찬성을 했고 56%는 반대를 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미국에서도 던졌는데, 대답이 어땠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미국에서는 대다수가 적절하다고 답변했습니다. 흥미 있는 차이입니다. 그러나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견이 존재합니다. 미국의 도시에서 행해진 조사 결과에 대해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뉴욕 시의 경우 좋은 성적에 대한 현금 보상이 더 이상 점수를 높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델러스의 경우에는 독서할 때마다 2달러를 주는 것이 더 많은 책을 읽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짧은 단편집을 읽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포괄적인 질문은 이 토론에서 제기된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현금 보상을 중단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현금 보상이 독서는 돈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교훈을 가르쳤을까요, 아니면 독서 습관이 개발되어 보다 높은 동기가 유발되면서 독서를 좋아하게 될 수도 있을까요?



“ 이것은 시장적 가치와 비시장적 가치에 대한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금전적 관계에 의해 밀려난 의무감이 한번 해체되거나, 잠식되거나, 또는 실종되면 회복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가 암시하는 것은 전통적인 경제 관념이 인간 경험과 사회적 관계의 중요한 부분을 간과한다는 점입니다.

”

제 친구 한 명은 아이들에게 감사 카드를 쓸 때마다 1달러를 줍니다. 누가 데리고 나가 저녁을 사주거나 선물을 주었을 때가 그런 경우입니다. 저도 그들의 감사 카드를 몇 번 받아 봤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읽어 보면, 아이들이 억지로 썼구나 하는 게 느껴집니다. 저와 제 아내는 이것이 그렇게 좋은 생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어렸을 때 감사 카드를 쓸 때마다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습관이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지 않아도 계속 카드를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 진정으로 감사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습관을 기르는 것은 궁극적으로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다른 교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 카드는 돈을 벌기 위해 쓰는 것이고, 따분한 일이라는 교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교훈을 얻었다면, 실제로 더 이상 아이들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감사 카드를 쓰지 않을 겁니다. 결국 이 도덕적 교육은 변질되고, 아이들이 감사의 미덕을 배우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쉽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감사 카드를 쓰거나 책을 읽는 데 적합한 사고 방식과 규범입니다. 현금 인센티브가 그런 중요한 비시장적 가치를 몰아

낼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한 위험은 감사 카드와 도서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례를 들어 보죠. 스위스에서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장소를 결정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모든 지역이 원하지 않았겠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위스 산악지대에 핵폐기장으로는 가장 안전할 것으로 보이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사회가 동의를 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작은 스위스 마을 주민들에게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의회가 당신 마을이 가장 안전한 핵폐기장이라고 결정한다면 여러분은 핵폐기장 건설을 용인하겠습니까?” 51%는 기꺼이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더 나은 제안을 한 거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의회가 핵폐기장을 여러분의 마을에 유치하고, 마을의 모든 주민들에게 1인당 매년 6,000유로까지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기로 투표했다고 가정하면 핵폐기장을 기꺼이 용인하겠습니까?” 자,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섰을까요? 90%? 95%? 100%? 아니면 더 낮게? 90%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몇 명이나 될까요? 정작 수치는 51%에서 절반인 25%로 떨어졌습니다. 전통적인 경제 논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역설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일을 하도록 돈을 지불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주민들이 돈을 제안 받

았을 때 핵폐기장을 받아들이는 자발성은 높아진 것이 아니라 낮아졌습니다. 절반으로 푹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냥 외쳐도 됩니다. 설명할 수 있으세요? 좋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청중 15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준다는 인센티브가 주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의회의 결정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은 이곳이 매우 좋은 위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사람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무감을 잃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어린이들이 독서를 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핵폐기장이 이 마을에 들어서는 경우에도 금전적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것을 용인하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그들은 자신들의 마을이 핵폐기장이 들어서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금전적 보상이 주어지면 주민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의무를 더 이상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마이클 샌델 매우 명석한 답변입니다. 제가 보기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전통적인 경제 논리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51%가 기꺼이 용인하려 했을 때 그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희생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핵폐기장이 마을에 들어서는 것이 별로 탐탁지는 않았지만 자신들의 마을이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믿

었기 때문입니다. 의무감에서 희생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전적 보상을 제안 받았을 때, 그것은 돈 거래여서 자신과 가족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면서 6,000유로를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마음을 바꾼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을 때 무엇이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매수되기를 원치 않았고, 금전적 보상은 뇌물처럼 느껴졌다.” 그뿐만 아니라 금전적 보상의 제안은 사안의 성격을 변화시켰습니다. 의무감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 상황에서 시장 인센티브가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종종 시장 인센티브는 다른 가치를 밀어낼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그것은 의무감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운영되는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늘 겪는 문제가 있었는데, 부모가 어린이들을 너무 늦게 데리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은 부모가 올 때까지 어린이와 함께 기다려야 했습니다. 경제학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 어린이집 문제의 해법을 발견해 냈습니다. 늦게 온 부모에게 벌금을 물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많은 부모가 늦게 오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전통적인 경제 논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역설입니다. 보통 상품의 가격을 올리면, 그 상품에 대한 소비가 줄어듭니다. 이것이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전통적인 가격 효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전에는 부모들이 늦게 오

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짐을 지운다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벌금이 도입되자 부모들은 벌금을 택아비와 같이 서비스에 대한 일종의 대가로 생각했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 죄책감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금전적인 불이익의 도입이 사고 방식, 규범, 그리고 이전에 존재하던 의무감을 소멸시킨 예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어린이집은 “아, 벌금은 효과가 없구나. 없애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은 여전히 어린이집에 늦게 왔습니다. 이것은 시장적 가치와 비시장적 가치에 대한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금전적 관계에 의해 밀려난 의무감이 한번 해제되거나, 잠식되거나, 또는 실종되면 회복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가 암시하는 것은 전통적인 경제 관념이 인간 경험과 사회적 관계의 중요한 부분을 간과한다는 점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시장은 중립적이어서, 거래되는 재화의 성격을 변하게 하지는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평면 TV, 자동차, 토스터 등과 같은 물질적 재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저한테 평면 TV를 팔거나, 아니면 선물로 주더라도 TV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TV는 두 경우 모두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렇지만 인간 관계, 시민의 의무, 교육, 학습 등과 같은 비물질적인 재화



에 있어서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에 현금 인센티브나 불이익을 적용하면 이 해당 재화들의 가치와 의미가 실제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시장이 공공의 이익에 도움되는 영역과 중요한 가치를 밀어낼 수 있는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 단순한 경제적 효율성을 넘어서는 고려를 해야 합니다. 공공 서비스, 교육 서비스, 감사 카드 같은 특정 재화의 성격을 규정하는 사고 방식, 가치, 규범 등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금전적인 인센티브 도입이 중요한 가치를 잠식하거나, 침해하거나, 또는 몰아내는지의 여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특정 재화와 행위에 어떠한 가치, 사고 방식, 규범 등이 적합한지를 판단할 때 경제학이 윤리, 도덕적 배려, 신중함 등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사례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죠. 군복무와 관련된 것입니다. 미국 남북전쟁 동안, 북쪽에서는 징병제를 도입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최초의 징병제를 확립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의 특별 조항에 따르면 남북전쟁에 참가하기 위해 징병이 됐는데 원치 않으면 대리인을 고용해 대신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항에 따르면 일정한 금액을 정부에 지불하고 군복무를 면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투표를 해 봅시다. 여러분 중에서 징병제도 하에서 군복무를 원치 않는 사람은 대리인을 고용하거나, 정부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군복무를 면제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얼마나 되십니까? 돈을

내고 군복무를 면제 받는 그런 제도를 찬성하시는 분? 손이 많이 안 올라가네요. 하나, 둘, 셋, 네 분이 손들어 주셨고요. 네, 이제 열다섯에서 스무 분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돈을 주고 군복무를 면제 받는 데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한국 사례로 바꿔 보도록 하죠. 이제 이렇게 가정해 보도록 하죠. 한국의 한 유명한 팝스타가 있는데, 콘서트를 자주 여는 20대로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사랑을 받습니다. 이 팝스타가 누구이면 좋을까요? 비. 좋습니다, 비라고 하죠. 비는 콘서트 공연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행복을 안겨 줍니다. 어찌면 레이디 가가보다 더 큰 행복을 안겨 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는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유명한 팝스타가 경력의 단절을 피하기 위해 군복무를 면제 받는 대가로 연간 수입의 절반을 한국 정부에 줄 수 있는 법안이 제출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한국 정부는 국고 수입을 늘리는 길을 확보하게 되고 팝스타는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안에 찬성하시는 분? 아까 미국 남북전쟁과 비슷한 숫자입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대부분 반대하셨습니다. 자, 그럼 먼저 찬성하시는 분의 이야기부터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청중 16 마침내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어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축구 선수인 박주영의 군복무를

면제해 주는 데 찬성한다고, 반면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주영이 해외에서 좋은 성적을 올려서 한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사람이 박주영 한 사람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국가에 헌신하는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박주영이나 팝스타가 수입의 절반을 기부할 수 있다면,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돈을 모금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실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법안에 반대할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실리적으로 접근한다면, 이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클 샌델 그럼 한번 해 보죠. 잠시 서 계세요. 이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가난한 사람들의 대학 입학에 도와서 기부금 입학제를 도입할 필요가 없게 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쓰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제안을 채택합시다. 돈은 그렇게 쓰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법안에 찬성하십니까? 아니에요? 좋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네, 일어서서 말씀해 주시죠. 법안에 대해 발언하시고 찬성하는 주장에 대해 반박해 보시죠.

청중 17 저 같으면 시민권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할 것입니다. 비와 박주영 모두 유명인과 스포츠 스타 이전에 한국 국민입니다. 따라서 한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그들이 하는 일보다 훨씬 더 소중히 여겨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클 샌델 팝스타, 축구스타이기 전에 한국 국민이라고 말씀하셨죠?

청중 16 그런 점에서 박주영과 비 모두 한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존중할 필요가 있고, 이 점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병역 면제에 찬성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박주영과 비는 인구 5,000만 명 중 두 명에 불과하고, 해외에서 공연을 하면 2년간 군복무로 국가에 공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국가에 안겨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축구 선수는 매우 제한된 기간 동안에만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고, 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리적인 관점에서 이 법안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클 샌델 지지자들이 늘어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분의 의견에 대한, 다시 말하면, 국민으로서의 의무에 대한 의미를 약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한 답변은 안 해 주셨습니다.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청중 16 시민권 가치의 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국민은 각자가 처한 환경에서 각자의 방식대로 국가에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국가를 위해 최선의 공헌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적의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마이클 샌델 이 주장은 점점 더 많은 지지자를 얻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주장에 반대하시는 분? 우리가 방금 들은 주장은 팝스타나 축구 선수의 재능을 이용해 가난한 한국인을 도울 수 있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것이 한국 사회에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청중 17 시장적 가치와 비시장적 가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공연을 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을 나라에 제공함으로써 실현되는 가치는 시장적 가치입니다. 반면에 군복무와 국가 수호 의무는 비시장적 가치입니다. 비시장적 가치가 시장적 가치로 전환된다면 군대에 가는 사람은 가난해서 군대에 간다고 느낄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 헌신적인 군인이 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군인들이 덜 헌신적일 때 국방력이 더 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저 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마이클 샌델 지금 말씀하신 분한테 직접 이야기하시죠. 지금 말씀하신 그분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분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청중 16 저는 지금 19살이고 2년 뒤면 군대에 갑니다. 저는 축구선수도 아니고, 비갈은 팝스타도 아니고, 또 한국의 아이돌이 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군에 가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제가 의미하는 것은 유명한 가수야 군대에 갈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군대에 가서 2년 동안 어려움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불공정한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고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것처럼 재능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그들의 능력을 국가를 이롭게 하는 데 쓴다

면 그 혜택이 국민인 저에게도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는 각자 다릅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겠지만, 사고방식을 바꿔 조금만 더 너그러워진다면, 군복무 문제는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중 17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토론하고 있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원칙에 대해 양보하고 동의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규범을 정하는 것은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당신이 삼성전자 대표의 아들인데 정부에 20억 원과 제트 전투기를 기부한다면 군에 복무하는 것보다 훨씬 국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효율성이나 유용성의 관점에서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적 가치와 비시장적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국방력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지 소수의 사람들에게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넓은 마음과 사회에 대한 높은 식견을 가져야 합니다. 또 어떠한 판단이 전체로서의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예외를 인정하고, 특권을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클 샌델 훌륭한 토론에 감사 드립니다. 지금 마지막 논쟁은 시장과 그 시장이 속하는 영역에 대한 토론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한 분은 모두에게 이로운 공공의 이익이 금전적 기여를 포함해, 다양한 기여를 더하거나 저울질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분은 모든 기여의 가치를 금전적으로만 비교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 비시장적인 특정 가치가 존재한다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국민의 정체성과 의무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시장 가치나 돈의 가치로 축소될 수 없습니다. 비록 가난한 사람들이 비가 군데에 가서 얻을 수 있는 혜택보다 더 많은 금전적 혜택을 입을 수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은 군복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비시장적 가치로서의 국민의 의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진행한 토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토론은 시장의 원칙과 돈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영역과 중요한 비시장적 가치를 몰아내는 영역을 판단할 때 언제나 필요한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여러 재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사서는 안 되는

재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시장이 거래되는 재화의 성격과 의미를 변형시키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시장과 돈이 우리 사회에서 잠식하려고 위협하는 중요한 시장 가치는 특정한 국민의 이익입니다.

이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최근 몇 십 년 동안 돈으로 점점 더 많은 것을 살 수 있게 되면서, 그리고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의 불평등이 커지면서 각자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경향이 점점 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향이 미국과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국에서 그러한 경향이 위험한 것인지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점점 더 여러 다양한 영역의 사람, 서로 다른 사회 계층의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일상적인 삶에서 교류하는 공개적인 기회가 줄어들고, 계층 간 교류의 관행도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불평등이 심화되는 시점에서 갈수록 더 많은 것을 돈으로 살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는 각자 다른 곳에서 일하고 쇼핑하고 여가를 즐깁니다. 부유한 어린이와 가난한 어린이는 각각 다른 학교에 다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함께하는 공동 생활을 위태롭게 합니다. 민주주의는 물론 완벽한 평등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다른 배경, 서로 다른 계층의 남녀가 공공의 장소에서 서로 만나고 함께 사는 법을 배우도록 요구합니다. 그래야 서로의 차이를 관용하고, 같이 논쟁하고, 함께 사고하며 상호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시장 사회의 위험, 즉 모든 것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하나의 삶을 공유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서로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질문은 결국 단순히 경제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떠한 사회를 만들기 원합니까?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을 찾아오면서 방문객으로서 제가 느끼기에 한국 사회의 인상적인 특징 중 하나는 공정 사회의 의미에 대한 논의가 점점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정성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이견이 있습니다. 공정 사회에 대한 개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이 주요한 정치 문제의 하나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건강한 민주주의의 징표입니다.

오늘 본 것처럼 공정성은 시장과 돈이 갖는 역할과 영향력의 범위에 대해 토론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공정 사회뿐만이 아니라, 좋은 사회라는 문제도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시장에서 돈의 역할에 대해 다시 반대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좋은 사회의 경우에도 가난한 사람에게 공정치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 서비스나 교육이라면 돈과 시장이 본래의 목적을 침해하거나 잠식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보다 건전한 이용, 독서를 좋아하도록 하는 보다 순수한 동기, 또는 마지막 토론에서 나온 국민이 된다는 것의 보다 숭고한 의미 등을 돈과 시장이 퇴색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이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밝히기 위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주장을 고려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아산정책연구원 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설문을 접했습니다. “오늘날, 돈은 삶의 보다 많은 부분을 지배하고 지나치게 중요시된다.” 몇 퍼센트의 한국인들이 이 말에 동의했는지 아십니까? 91%인데, 미국에서는 조금 낮은 85%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회에서 돈이 지나치게 중요시된다는 인식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 토론에서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은 돈이 지나치게 중요해 보이는 이유에 대한 진지한 논의입니다. 그리고 시장과 돈의 영향력이 미치는 영역에 대한, 그것들이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가치

에 대한 진지한 토론도 없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열린 공간에서 여러분들과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높은 수준의 논쟁뿐만 아니라 토론에 임하는 정신 자세, 상호 존중의 정신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의견이 강하게 충돌할 때도 서로의 주장에 귀 기울였고, 서로의 도덕적 원칙과 논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민주 사회인 한국에서, 그리고 미국과 전 세계 민주 국가에서 공적 담론의 표현 방식을 고양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거의 모든 민주 국가는 오늘날 커다란 좌절감을 맞보고 있습니다. 저급한 수준의 공적 담론에 대한 좌절감입니다. 많은 경우 정당과 정치인들은 정의, 공동 선, 시장의 역할, 국민의 의미 등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이 논리가 정연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격렬하고 도전적인 공적 담론이 무엇인가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밤이 중요한 현안에 대해 공개적인 장소에서 함께 생각하는 방식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출발점이자 모범 사례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바람이 이루어진다면, 여기 우리는 민주적인 삶과 민주적인 시민성을 재생시키고 활성화하는 출발점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SAN SPECIAL LECTURE

What Money Can't Buy

June 1st, 2012

Speaker

Michael J. Sandel



“ **Michael J. Sandel**

Thank you! This is amazing! Yo Ro Bun Sarang Hae Yo! We are here for a philosophy lecture, but not just a lecture. This is also a discussion, here in the open air. Are you ready to participate with me in a discussion? If that's true, then what we are doing here together tonight may not only be the world's biggest lecture about philosophy; it may also be a democratic moment, a time when we can offer an example to Korea and to the world of what democratic discourse about big questions can be. So will you join me in that? ”

We are going to take up some hard questions tonight, questions on which people may disagree. What matters is not so much that we all come to the same answer. What matters is the spirit and the respect in our disagreements. Our subject tonight is a question that faces democracies around the world, and that question is this: what should be the role of money and markets in our societies? These days, there are fewer and fewer things that money cannot buy. Money can buy almost everything. But do we want it to be that way? Or are there certain values, certain aspects of the good life that money can't buy or shouldn't buy? That's our question.

It's a question that arises with special urgency today because we live in a time when the faith in markets is very high, so much so that money and market values have been reaching into spheres of life outside the realm of material goods. We have, in the last few decades, in democratic societies that have enjoyed economic success, drifted and moved from having market economies to becoming market societies. The difference is this: A market economy is a tool, a valuable and effective tool for organizing productive activity. Market economies

have brought prosperity and economic growth and affluence to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Korea. That is a great achievement. But a market society is different. A market society is a place where everything is up for sale. A market society is a way of life where money and market values begin to govern the whole of life, our identities, our personal relationships, family life, health, education, and civic life. And so, I think that we in democratic societies need to have a public debate about the proper role of money and markets.

So let's begin that debate tonight. The appeal of markets is that they let people buy and sell goods according to whatever value buyers and sellers place on those goods. Let's take an example: the practice of scalping tickets to popular events—buying and selling them online. Suppose there is a very popular concert by Lady Gaga. How many think that it would be all right to scalp tickets, to buy and sell tickets online to a Lady Gaga concert? How many say it would be all right? Raise your hand. And how many disagree? How many think that it would be wrong to scalp tickets to a Lady Gaga concert? Not everybody voted. Perhaps some people are waiting to sell their vote to somebody else. Let's hear from someone who objects,

someone who thinks it's wrong to scalp tickets to a Lady Gaga concert. What's wrong with it? Who will begin our discussion? Stand up if you would like to answer the question. Who objects and will explain why it's wrong? Who is brave enough to begin? Stand up and tell us your name.

Audience Member #1 It's my great honor to attend this very famous lecture. I have an answer to why I will not buy and sell a Lady Gaga concert ticket. As you know, Lady Gaga is a well-known, distinguished person. But it is not only in this instance, but any instance, that scalping a ticket would be questionable. But there is no reason to see it as honorable. Even if the tickets are one hundred won or one thousand won, I cannot do it. That's out of the question.

Michael J. Sandel Let me ask you a question. Are you saying that you think that it is wrong in principle to sell a ticket to a Lady Gaga concert or are you saying that you don't want to sell yours?

Audience Member #1 Was that about the principle, not about my personal guidelines? In that case, I may have made a

mistake. I'm sorry.

Michael J. Sandel Now let me hear from someone who thinks it's all right to have a market in tickets for Lady Gaga? All right.

Audience Member #2 My opinion is that if I want to sell a ticket, then it's okay. If I want to listen to Lady Gaga's concert, and if I can buy the ticket, then selling that ticket would not be inappropriate. Sorry I'm a little nervous.

Michael J. Sandel That's a good answer. It's all right. People should be free, to buy and sell tickets to a Lady Gaga concert because a rock concert is a form of entertainment and why not buy and sell access to entertainment? Is that the idea? Okay.

Then let's take an example, another example, where people might scalp tickets. When I traveled to China I learned about a practice. Outside of Beijing hospitals, many people come for doctor's appointments and medical treatment, including from distant rural areas where they lack access to the medical care they need. The lines in the hospital waiting rooms are very

long in some of the top Beijing hospitals. People have to wait, sometimes for days, waiting overnight for an 'appointment ticket' for a doctor's appointment. And a business has arisen where entrepreneurs hire homeless people and others to wait in the long lines to get the appointment ticket when the ticket window opens and then the businessmen scalp the tickets, sell the tickets for a higher amount of money for the doctor's appointment.

Now, let's take a vote on this version of ticket scalping. How many people find scalping tickets for a doctor's appointment objectionable? How many think it's wrong? Raise your hands. And how many don't? How many think it's okay? All right, let's first hear from someone who objects to scalping tickets for a doctor's appointment. Who will tell us why? Yes, the woman standing up right there. We'll get you a microphone. Go ahead. The woman sitting in the middle, stand up.

Audience Member #3 I'm one of those people who don't think that it's right for people to even scalp tickets for a Lady Gaga concert because entertainment is one of the things that are really open to everyone to be enjoyed. And the

same goes for waiting for doctors' appointments, because it's actually a basic human right. Everyone should be given equal opportunity. That's what a democratic society defends.

Michael J. Sandel Now may I ask you a question? You gave a very strong answer about opposing the selling of tickets to a doctor's appointment because medical care, you said, is a basic right. But you also opposed selling tickets to a Lady Gaga concert. Do you think attending a Lady Gaga concert is also a basic human right?

Audience Member #3 It really depends on what we enjoy. In the American constitution, there was something about...no, it's in the Korean constitution... there is a right to pursue happiness. I'm pretty sure it's in the American constitution as well. If you want to enjoy a Lady Gaga concert, then you should be free to go and enjoy it.

Michael J. Sandel Does that mean she can't even charge for tickets?

Audience Member #3 No. That's her living.

Michael J. Sandel If some people can't afford the ticket, have their human rights been violated?

Audience Member #3 It's not really a matter of whether you are unable to afford it, but when the price of the ticket is over what Lady Gaga wanted to sell it for, it is taking advantage of people's social positions and their affluence.

Michael J. Sandel Okay. All right, thank you for that. Now I would like to hear from someone who thinks it's all right to scalp tickets to a rock concert or a Lady Gaga concert but who thinks it's wrong to scalp tickets to a doctor's appointment. Who holds that view and can explain why? Yes.

Audience Member #4 I think that it is okay to scalp tickets to a rock concert because the ability to go a rock concert isn't a basic human right. It is a matter of choice and of whether you wish to go to the concert enough to pay the enormous price of a scalped ticket. However, I believe that it is wrong to scalp tickets to a medical facility because, in that case,

it isn't actually a free choice. It is a matter of being coerced into buying those tickets because you are in actual need of those tickets and because you are so desperate that you must buy those tickets. You are forced to buy them whether or not they are charged at an exorbitant price.

Michael J. Sandel You draw a distinction between attending a rock concert, morally speaking, and medical access to a doctor on the grounds that it would be coercion. Medical treatment, as you say, is a necessity and, therefore, there should be no ticket scalping to see doctors. Do I understand correctly? Okay. Now, this distinction brings out an important feature of arguments about where markets are appropriate and where they are not appropriate. We have to reason about the nature of the goods. We have to decide whether access to the good is a necessity or a matter of basic human rights or simply a source of pleasure, a matter of choice. With a rock concert and with a doctor's appointment, the answer to that question may not be that controversial.

I should ask you about one other case. Do you think it is fair or just or appropriate to scalp tickets to a philosophy lecture?

How many say yes? How many here bought a ticket online? How many say no? And who among you that says no will explain why? Why would you object? Yes.

Audience Member #5 I think that there is a core issue in that problem. I think economists would argue that if we let the market control the price, then it would be natural and it would be just. But I do not think that way. I think when you let money take over everything or when you let money buy everything, I think it facilitates social inequality, and the rich would be favored more than any other people who are less fortunate. So, I think there is real problem in that.

Michael J. Sandel Let me ask you this question. How did you vote on the scalping of tickets to the rock concert? Is that wrong? And that is wrong because the poor cannot afford high ticket prices?

Audience Member #5 Right, and think that it is more just waiting in line rather than buying everything online.

Michael J. Sandel And would you say that of all goods? Would

“
We have to decide whether access to the good is a necessity or a matter of basic human rights or simply a source of pleasure, a matter of choice. With a rock concert and with a doctor’s appointment, the answer to that question may not be that controversial.”



you say that markets are never appropriate to the allocation of goods?

Audience Member #5 As long as it is fair, I think it is good. But when there is a black market and when people can just sell off everything for higher prices, I think it is really wrong.

Michael J. Sandel All right, who disagrees? Who would like to defend the use of markets in at least some of these cases against this objection? Who disagrees? Yes, the woman towards the front who is standing up.

Audience Member #6 And my opinion is that there are some material goods that should be allowed to be sold in the market. For example, this microphone, this is something we can sell in the market. This is not something we should wait in line to get. Maybe in some communist country you would do so. But in a market economy, there are a lot of material goods that belong in the private domain that could be sold, unlike public goods or public values. For instance, you mentioned black markets. There is an organ black market in China, and that is a serious problem because organs should

not be private goods. It should not be sold to the highest bidder. It should go to someone who really needs it.

Michael J. Sandel All right, so how can we distinguish those goods that should be appropriate to buy and sell in a market?

Audience Member #6 I think that is the biggest question in our era and that is the biggest dilemma we have in this philosophy lecture today.

Michael J. Sandel You are right. But that is why I am asking for your view about this. So, organs are inappropriate for markets and a ticket to a rock concert?

Audience Member #6 I think that belongs to the market.

Michael J. Sandel That belongs to the market. And access to medical care?

Audience Member #6 I think that does not belong to the market. I think there should not be scalping or a black market.

Michael J. Sandel And access to a philosophy lecture?

Audience Member #6 Personally, I strongly believe that it should not belong to a black market or market economy because, thinking about the nature of this philosophy lecture, the title is “What Money Can’t Buy, right? Of course there are a lot of goods that money can buy but, at the same time, there are some goods that money should not be able to buy. And this lecture is not one of those things we should buy with money. It should not be bought with money.

Michael J. Sandel All right, and can you detect the pattern or principle to help us think through these questions of what money should and should not be able to buy? Organs are part of the human body. Is that right?

Audience Member #6 Yes. I think one of the students back there already mentioned that this belongs to basic human rights, to be cured of disease or any illness.

Michael J. Sandel And access to education? A philosophy lecture is a kind of education.

Audience Member #6 Yes. I also think that belong to basic human rights. Therefore, it should not be up to the market to be responsible for it.

Michael J. Sandel But for rock concerts, entertainment, and material goods, the market is okay?

Audience Member #6 For some goods that can be considered as luxuries, I think they can belong to the market.

Michael J. Sandel All right, so we have the beginning. You have offered us an initial attempt to distinguish those goods that should be bought and sold in the market and those that should not be, that should be governed by other values. Thank you. That is a very helpful beginning point. Let’s now take a hard case to test this principle.

For admission to a top university, there are many well-qualified students. Suppose you are the president of a great university—maybe you are the president of Yonsei University—and you have many outstanding applicants for admission. The university also needs money to carry out its educational mis-

sion. Suppose someone proposes to you that you take 10 percent of the university placements and sell them to the highest bidder in the following way: you fill 90 percent of the places according to the best qualified students. For the other 10 percent, you are willing to accept students who are not the best students but who are strong enough so that they could benefit from the education and graduate, so they would not fail but they would not be the top students, and you will choose them on the basis of whose parents will give you very large donations for the university.

Let's take a vote. How many, as president of the university, would agree to the system of selling 10 percent of the places to accept the children of wealthy donors who will give you money? How many would be in favor of that? And how many would oppose that policy? How many would not sell university placements? So the majority would not but a substantial minority would. Let's begin with those who would not. Who would object and who can explain why he or she would object. Yes, stand up. We'll get you a microphone.

Audience Member #7 So, I disagree that the school should be

allowed to sell 10 percent of the spots to the people who are willing to pay. This is because I believe that the matter of whether it should be able to be sold in the market or not should be determined by the original purpose of the product or whatever is being sold. And I believe that the university's original purpose is to provide education.

Michael J. Sandel It's providing education even to the 10 percent of the weaker students.

Audience Member #7 Yes, but the process of choosing the weaker students should not be based on how rich they are or how much money their parents are willing to pay. It should be determined by the student's willingness and passion for education and learning.

Michael J. Sandel Because that's the purpose of a university?

Audience Member #7 Yes.

Michael J. Sandel And to allow money to determine who is admitted would be, do you think, a corruption of the purpose of

the university?

Audience Member #7 Yes, I believe so, because the purpose of the university is not to make profits and make money. So I think that the original purpose should be the university's priority and the methods to accomplish that should be determined by that priority.

Michael J. Sandel Very good. Stay there. Keep the microphone. Let's hear from someone who disagrees. Let's hear from someone who would agree to the policy of selling seats.

Audience Member #8 [Audience Member #7] mentioned the purpose of university education, but I think that if the university accepts donations from the rich 10 percent of students, [then] the university can offer better education. So, I think accepting donations doesn't oppose the basic purpose of university education.

Michael J. Sandel Okay. Now I want the two of you to speak to one another. What would you reply? How would you reply? Speak directly to him.

Audience Member #7 As I mentioned, I think that it is important for the university to gain access to money so that they can offer better education. However, I'm saying that it should not come before the original purpose, which is to provide education and to find students who really need it and who really want the high quality education from the university.

Michael J. Sandel What would you say? Speak directly to her. See if you can persuade her.

Audience Member #8 Okay. I think 10 percent is not a big number. If the number was around 30 percent or 40 percent of course it should not be carried out. But 10 percent is appropriate, so the university can still maintain that policy.

Audience Member #7 Why 10 percent? I don't understand. What is your standard for deciding that 10 percent is ok? How about 11 percent or 15 percent? What's the standard for deeming the percentage to be okay?

Audience Member #8 Of course, the number would be decided by the board of directors. But what I want to say is that 10

“
One argument is about fairness to those who can't afford to make a big donation or whose parents can't. A second objection says that buying and selling places in a university violates the purpose of higher education, a purpose of a university. So, we might distinguish these two arguments against markets in certain circumstances as the Fairness Argument and the Corruption Argument.”



percent is not that big. It can be accepted by the public.

Michael J. Sandel But I think she is pressing you for a principle. You would object to selling half the seats?

Audience Member #8 I think 50 percent is not appropriate.

Michael J. Sandel It's too much?

Audience Member #8 Yes.

Michael J. Sandel But you could make more money by selling 50 percent than 10 percent. And the money serves good purposes, providing for the education of everyone.

Audience Member #8 But 50 percent is too much. Many people will object to the policy.

Michael J. Sandel Well, many people may object. Many people may object to 10 percent. But what's the right thing to do?

Audience Member #8 I think my university has to gather the

general public's opinion about what proportion is appropriate.

Michael J. Sandel But what we are trying to figure out here is what public opinion ought to be — how we should try to persuade people. Maybe we should try to persuade the public to accept 50 percent of the seats sold. You don't think so?

Audience Member #8 Yes.

Michael J. Sandel You would favor 50 percent?

Audience Member #8 If people don't object to 50 percent, I think that's also appropriate.

Michael J. Sandel And if they don't object to 100 percent?

Audience Member #8 Sorry.

Michael J. Sandel You've done well. All right, we've begun a good debate. We're trying to identify the principle, and one principle that we've identified about whether access to university

should be bought and sold has to do with the purpose of university and whether buying and selling seats would undermine, erode, or corrupt that purpose. Is there anyone who objects to buying and selling seats who has a different objection from the one that we've discussed already. Yes. Sitting near the aisle. Stand up.

Audience Member #9 If the university is able to sell the placements to the public, maybe only the rich students can buy the placements in the university and the poor could not. So, I think it's unfair to the public.

Michael J. Sandel All right, so this is a different reason. Do you want to reply to him? Do you still have the microphone? What about the argument of fairness, that it's unfair to talented students who come from families that can't afford to make a big donation. Isn't it unfair to them?

Audience Member #8 Yes. It's unfair to them. How can I say this? I'm losing my logical ability.

Michael J. Sandel I just want to say that happens to all of us

sometimes, and I appreciate that. You did a great job. Thank you to all of you. I want to thank everyone who participated in this discussion. Really, good job.

What this discussion brings out are two different kinds of objections to using markets for buying and selling certain goods. In the case of access to higher education, we heard two different objections to auctioning off places in universities. One argument is about fairness to those who can't afford to make a big donation or whose parents can't. A second objection says that buying and selling places in a university violates the purpose of higher education, a purpose of a university. So, we might distinguish these two arguments against markets in certain circumstances as the Fairness Argument and the Corruption Argument. The Corruption Argument says we have to ask about the purpose of the good and ask whether buying and selling would undermine, erode, or corrupt the purpose, in this case, of higher education.

Let's take another example that is also from education but is not about university admissions: a question about the use of cash incentives. More and more these days, cash incentives—monetary payments—are being used to try to achieve social

goods. In the United States, in many cities, there are schools with children from disadvantaged backgrounds who underperform academically. In an attempt to motivate those students, some schools have begun offering money—monetary rewards, cash incentives—to students who get good grades or high test scores or who read a certain number of books. They've tried this in New York, in Chicago, in Washington. In Dallas, Texas they have a plan that pays young children two dollars for each book they read.

Let's see what people think about this policy. Imagine that you are the head of a school district with underperforming students from poor backgrounds. Someone comes to you with a proposal to pay students. Maybe fifty dollars for an "A", forty dollars for a "B", two dollars for each book they read.

How many, if you were running the school system, would favor this plan, or would try it out at least? And how many would oppose, reject this idea? How many think it might be worth trying, to motivate students with money? How many would be opposed? The majority would be opposed, a minority would try it. Let's hear first from someone who is opposed.

People should be free to speak in English or in Korean, in participating in this discussion, in whichever language you feel more comfortable. Who opposes the use of money? Yes, stand up and we'll get you a microphone. Tell us why you would oppose this policy.

Audience Member #10 I actually have a personal concern. I have been taking a particular class and until my sophomore year I had a scholarship, but starting from my junior year I was not able to get the scholarship because of poor grades. This is a very stressful situation for me because I am the eldest daughter in my family and my parents have very high expectations of me. So, I think this kind of cash reward can put a lot of stress on a student. Even for a university student it's a lot of stress. So, for an elementary level student, I think it will be an even greater stress. I think it will defeat the purpose of education. Thank you for listening.

Michael J. Sandel Well, will it defeat the purpose of education because it will create stress? How exactly, apart from creating stress, do you think it will defeat the purpose of education?

Audience Member #10 I am actually preparing to enter graduate school. Given the nature of my major, I am unable to take classes in mathematics and physics. But, at the graduate school level, we need to study those subjects extensively. So, to get better grades, I need to constantly study lens-processing because I am studying eyeglasses technician work, so I actually want to study chemistry and physics, but because I have to dedicate a lot of my time to processing lenses, I am unable to do so. So, this defeats the purpose of education.

Michael J. Sandel I want you to think about young children. Let's take the example of paying two dollars for each book. Who else objects to paying a child two dollars to read a book? Yes. Go ahead.

Audience Member #11 May I say my opinion? Reading a book is for his future and for his education and for getting knowledge. But with paying or getting money, I think it's not right to give them money to read books or get good grades.

Michael J. Sandel And why? Tell us why.

Audience Member #11 Because they should dream of getting education, of getting more knowledge. We cannot get whether he really understands by simply reading a book. He might say “Ok, I will read a book.” Maybe we could give him a test to check that he really understands the book.

Michael J. Sandel All right, so ideally we want students, as you say, to be motivated by a dream, the love of reading, the love of learning for its own sake. And that’s why you object to paying children to read books. Who disagrees? Who has a reply? Yes, go ahead.

Audience Member #12 In my case, I think he’s saying this because he feels that without a cash reward children will stop reading. But maybe kids will initially begin to read because of cash rewards, but as they grow, they will learn that it has helped them. So of course, money may serve as the initial motivation, but it starts them reading.

Michael J. Sandel So, you are suggesting that maybe the money, the cash incentive, will bring a child to read and once the reading begins, once the habit is formed, then the child may



“
All right, so ideally we want students, as you say, to be motivated by a dream, the love of reading, the love of learning for its own sake. And that’s why you object to paying children to read books.”

learn to love reading for its own sake, right? So that would be a reason in favor of paying a child to read. Let me ask you a question. Did your parents give you money to get good grades or to read?

Audience Member #12 Not really cash, but I received compliment stickers. Not cash, but I got stickers for reading. For example, if I read, then my parents would give me stickers. If I collected a lot of stickers then, at the end of the day, I would be able to get a gift that I prefer. So, that was what my family, my parents, did for me. Initially, I did start to read because of the stickers, but later on I learned to love reading. And last year I was selected as the most avid reader in the school library so I really love reading.

Michael J. Sandel Very good, good for you. So you speak from experience. Now we've had a powerful argument in favor of paying children to read with money, stickers and gifts. Who disagrees and has a reply to that argument? All right, you're a teacher. We have a teacher here who wants to reply. Go ahead. Stand up and we will hear from the teacher. Are you the teacher? We have many teachers.

Audience Member #13 I'm from Elementary School. I would like to say that that's a really unique case. Because I sometimes use the blue sticker thing, and whenever they got a perfect score in dictation or some kind of short test, I used to give a blue sticker and after that, when I stopped giving them these, they didn't study any more. There was a lack of motivation. If I give them a blue sticker, one said that she got some stuff, gifts. Then the aim of studying is getting some gifts or blue stickers, not studying itself. So, I think to give them motivation in the long term I should motivate them to read for its own sake, or to use money for something else, like support for the facility of that school or training teachers, not giving money to students directly.

Michael J. Sandel Right, and the reason you don't want to give money directly to students to motivate them is that eventually it will lose its ability to motivate them and you instead want the internal motivation. Thank you for that. And we have another teacher down here. What would you like to say?

Audience Member #14 Actually, I'm not a teacher. I was just raising my hand.

Michael J. Sandel I see. I'm sorry. Go ahead.

Audience Member #14 I think there is an important factor that we have to consider, which is for children who are from poor households. I think these children are going to be in desperate need of earning money for their own household. I think getting blue stickers or a small allowance is different from this policy that you suggested.

Michael J. Sandel And are you against the policy of paying?

Audience Member #14 Yes, I am totally against it.

Michael J. Sandel And why are you against it?

Audience Member #14 I think by doing this policy children would have ulterior motives to read books.

Michael J. Sandel Ulterior motives, the wrong motives?

Audience Member #14 Yes, to earn money for their poor households.

Michael J. Sandel And what do you say to the argument that was made earlier that maybe money is not the highest motive to read, but maybe paying children can develop the habit of reading, and then maybe they would learn, later, to love reading. That was an argument we heard. What do you say to that argument?

Audience Member #14 Well, I think, from her experience, she earned the compliment stickers, right?

Michael J. Sandel Stickers, but then a gift.

Audience Member #14 Yeah, but I think money is different from just normal gifts, because in this policy, the children from poor households would get money instead of small gifts. So I think their main purpose would be to earn money for their family.

Michael J. Sandel I understand. That may be their main purpose. But do you think they might read for money but then learn to love reading later?

Audience Member #14 Well, I think there is a high risk that children would form a dangerous norm that money can do...

Michael J. Sandel No, you're doing well. You talked about a dangerous norm; you mean that the money will form a dangerous norm.

Audience Member #14 Yeah. The children's ultimate motive to do something would be to earn money.

Michael J. Sandel So the danger is that, you think, is creating the norm and the expectation and the attitude toward reading and learning that it's mainly about money rather than about the internal or the intrinsic good. Thank you to all of you who participated in this discussion of paying children.

By the way,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commissioned a survey which you may have heard about. And one of the questions asked was whether it is appropriate for parents to pay children to study or to read. In Korea, what do you think public opinion is, for or against? What would you guess? Opinion is divided, with 44 percent in favor of paying by par-

ents, 56 percent opposed. So it is a divided opinion. And the same survey actually asked the same question in the U.S., and what do you think the answer was there? Actually, in the U.S., the majority thought it was appropriate for parents to pay children to read. That was an interesting difference. But in both countries there is a disagreement, a division of opinion. I should tell you about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s that have been done in U.S. cities paying children. In New York City, paying children for good grades did not improve grades. But in Dallas, paying the young children two dollars for each book did lead the children to read more books. It also led them to read shorter books.

But the broader question is the one that has come out in this discussion. What will be the effect in the long term once the money stops? Will the payment teach the lesson that reading is for the sake of money, or might it develop the habit of reading and lead to the higher motive of reading for the love of it? A friend of mine pays his young children one dollar for each thank-you note they write, if someone has taken them out for dinner or sent them a gift. I have received some of these thank-you notes. And I can tell by reading them that they

were written under a certain pressure. My wife and I do not think that this is a very good idea. And we wonder how these children will turn out. It is possible that when they grow up, having been paid to write thank-you notes, they will develop the habit of doing so, a habit that may continue when they're no longer paid. Maybe they will learn the higher motive of gratitude, in which case all will be well. That is one scenario, developing a habit that will ultimately lead to appreciation, a higher motive. But it might also turn out that these children will learn a different lesson. They may learn the lesson that a "thank-you note" should be written to make money, that they are a chore, a job for pay. And if that is the lesson they learn then, when the money stops, so will the thank-you notes. Their moral education will have been corrupted, and they may find it difficult to learn the virtue of gratitude. It is hard to say what will happen with these children.

But what are at stake are the attitudes and norms that are appropriate to writing thank-you notes or to reading books, the danger that money, that cash incentives, can crowd out non-market values worth caring about. That danger is not restricted to questions of thank-you notes and reading books.

Let me give you another example. In Switzerland, they were trying to decide where to locate a nuclear waste site. No community wants one in its back yard. They are risky. There was a small town in the mountains in Switzerland that seemed to be the safest place for the nuclear waste site. But the local community had to agree. And so, before the Parliament came to a decision, a survey was done asking residents of this Swiss town the following question: if the Parliament decides that your town is the safest place for the nuclear waste, would you approve having it there? 51 percent said, yes, they would be willing. Then they asked a second question. They improved the offer. They said this: suppose the Parliament votes to put the nuclear waste site in your town, and offers to pay financial compensation every year to each resident of the town of up to 6,000 Euros. Would you then be willing to accept the nuclear waste site? Now how many do you think were willing? What would you say? 90 percent? 95 percent? 100 percent? Lower? How many think lower? How many think 90 percent or more? The number dropped from 51 percent, in half, to 25 percent. Now from the stand point of standard economic reasoning, this is a paradox. Usually, if you pay people to do something, there are more people who are willing to do that thing. Here,

“

It also shows something important about markets and non-market values. Once a sense of obligation is dissolved or eroded or lost because it has been crowded out by a monetary relationship, that sense of obligation may be very difficult to revive.”



when people were offered money, their willingness to accept a nuclear waste site went down, not up. It fell by half. How can we explain this? Does anyone have an explanation? What would you say? You can just call it out. Can you explain it? Okay, go ahead.

Audience Member #15 Now they have proposed that they would give monetary compensation to the people in this Swiss town, this idea of incentive. But, first, there has to be a decision by the Parliament. And I think the people in the Parliament have decided that this is a very good location. But if they provide a monetary offer, then I think the residents will start to lose the sense of obligation that they need to actually accept this proposal. You talked about reading a book, giving monetary incentives, and having this to make the kids read. Just like that case, I believe that when it comes to this nuclear facility, and for this nuclear facility to be located in this town, it no longer becomes an obligation and duty of the residents because the financial compensation is given. Previously, they thought that their town is the most adequate site to house that nuclear waste facility. But if you give monetary compensation, people are not going to

feel that they have a duty to accept it.

Michael J. Sandel That is very clever. I think that is what happened. The reason standard economic logic did not work in this case is that when the 51 percent were willing to accept it, they were willing to accept a burden to make a sacrifice for the sake of the public good, because they believed their town was the safest place for the nuclear waste even though they were not happy to have the waste there. They were willing to make that sacrifice out of a sense of obligation. Then, when they were offered money, they thought that this was now a financial transaction, and were not willing to accept 6,000 Euros to subject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to the risk. So, in fact, when they asked the people who would change their minds why they changed their minds, do you know what they said? They said “we did not want to be bribed, and the monetary offer felt like a bribe.” And not only that, the monetary offer, just as was suggested here, changed the relationship. It crowded out the sense of obligation. This brings out an important feature of market incentives in certain circumstances. Sometimes market incentives can crowd out other values—in this case, a sense of obligation.

Consider another story. In Israel, there were some daycare centers, some nurseries that had a familiar problem, parents coming late to pick up their children. A teacher had to remain with the children of the late arriving parents until they came. With the help of some economists, the daycare center came up with a solution. They established a fine for any parents who arrived late. What do you suppose was the result? There were more parents coming late, more, not fewer, once the fine was established. Here, again, from the standpoint of standard economic reasoning, this is a paradox. If you raise the price of a good, normally, you would expect fewer people to consume that good. That is the standard price effect, as the economists say. But, here, it had the opposite result. Why? What had happened? Well, before, parents who came late felt guilty. They felt they were imposing on the teachers, but once a fine was established, the parents treated the fine as if it were a fee, a fee for a service, like a babysitting fee. If you are paying someone a fee for a service, there is no reason to feel guilty.

So here, again, the introduction of a monetary incentive or disincentive had the effect of crowding out attitudes and norms, a sense of obligation that existed before the monetary

disincentive was introduced. When they saw what happened, the daycare center said “Well the fine didn’t work, we’d better remove it.” They dropped the fine. But parents still came late at the increased number, which also shows something important about markets and non-market values. Once a sense of obligation is dissolved or eroded or lost because it has been crowded out by a monetary relationship, that sense of obligation may be very difficult to revive. What these examples suggest is that standard economic thinking misses an important aspect of human experience and social relationships. Economists often assume that markets are inert, that they are neutral, that they do not change the character of goods being exchanged. This may be true when we are talking about material goods like flat-screen televisions, or cars or toasters. If you sell me a flat screen television, or give me one as a gift, the television will be the same. It will work just as well either way.

But the same may not be true when we are talking about non-material goods, human relationships, civic duties and obligations, teaching and learning. With these relationships, introducing a cash incentive or disincentive may actually change

the value and meaning of the goods at stake. And if that is true, then in order to decide where markets can serve the public good and where they may crowd out values we care about we have to consider more than simply matters of economic efficiency. We have to ask about the attitudes, the values, and the norms that define certain goods, such as civic goods, educational goods, thank-you notes. We have to try to figure out whether introducing a monetary incentive will actually erode or corrupt or crowd out values worth caring about. This means that economics cannot be separated entirely from ethics, from moral considerations, from deliberation about what values, what attitudes, what norms, are appropriate to certain goods and activities.

I would like to ask you about one last case. It involves military service. During the U.S. Civil War, the North conscripted. Abraham Lincoln established the first system of military conscription. But there was a special provision in the law that said that if you were drafted to serve in the Civil War and you didn't want to go, you could hire a substitute to take your place. And many people did hire substitutes to take their place in the U.S. Civil War. Another provision of the law allowed you to pay

a certain amount of money to the government and to be released from your obligation of military service. Now let's take a poll on this question. How many think that if there is a system of military conscription, people who don't want to serve should be able to pay certain amount of money to hire a substitute or pay a certain amount of money to the government to be relieved of the obligation? How many would favor such a system, a financial buyout of military conscription? I don't see very many hands. One, two, three, four, now I see maybe about a dozen, maybe fifteen or twenty. How many object to allowing people to buy their way out of military service?

Let's change the example to a Korean case. Now, let's suppose there is a famous Korean pop star, who is beloved in Korea and in other countries, who puts on concerts and who is in his twenties? Who should be the pop star be? Rain. All right, we'll assume it's Rain or Bi. Now, Rain, by giving his concerts, brings great happiness to many people. Probably more happiness even than Lady Gaga. Do you think? He also makes a huge amount of money. Suppose a law was proposed that said that if you are a big pop star, you can, so as to avoid interrupting your career, pay half of your yearly earnings to

the Korean government in exchange for being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 The Korean government would then have a way of making money and the pop star can go on bringing pleasure to millions of people around the world. How many would favor this proposal? Only about the same number who favored the U.S Civil War buyout. How many would oppose this proposal? Most people would. Now let's hear first from someone who would favor the proposal. Yes, tell us why?

Audience Member #16 Thank you for finally recognizing me. I'm going to speak in Korean. Many people would say this. Joo Young Park is a soccer player and some people are in favor of relieving him of military duties. On the other hand, there are people who are against it. Although Joo Young Park is playing very well overseas and raising the status of Korea, but it would not be just him. There are other people who are contributing to our nation. So, if Joo Young Park or pop stars are able to donate half of their earnings, let's say, for example, if they could help raise money to raise the quality of the life for the poor, I don't know how many people would actually oppose this amendment. So, if we were to approach this pragmatically, I think few would actually be



“
This means that economics cannot be separated entirely from ethics, from moral considerations, from deliberation about what values, what attitudes, what norms, are appropriate to certain goods and activities.”

opposed to this amendment.

Michael J. Sandel We will try, stay there. Let's suppose that the earnings, the money, will be devoted to helping the poor gain access to university so we don't have to auction seats in the universities, or to help the poor in other ways. Let's take that proposal. That's what the money will be used for. Now does everybody favor the proposal? No? All right, so who would object? All right go ahead, yes, stand up. Speak to the proposal right here and address the preceding argument.

Audience Member #17 I would object because that would undervalue the value of citizenship. He talked about Joo Young Park. I think Rain and Joo Young Park are both citizens of Korea before they are celebrities and sports stars, so I think that the obligation of them as a citizens of Korea should be valued far more than what they do.

Michael J. Sandel They are citizens of Korea before they are pop stars or celebrities or soccer stars. What do you say?

Audience Member #16 I think from that sense, of course Joo

Young Park and Rain, as citizens of Korea, need to respect their duties as citizens, and we need to set very clear criteria on this. However, many people who are for this say that Joo Young Park and Rain are a very small minority of the population and they, if they were to perform outside of Korea, they would earn far more revenues that can create far more benefits for Korea than their serving in the military for two years. For soccer players, they only have a limited window of time in which they can perform with excellence, and likewise with Rain. So I think, from a pragmatic perspective, we need to make this legal amendment.

Michael J. Sandel It sounds like you are winning some supporters. But I didn't hear your answer to the challenge that this would cheapen the meaning of citizenship. What is your answer to that challenge?

Audience Member #16 It is not about whose citizenship has higher value or lower value. I think each citizen in his or her own place can serve the country in their own way. I am not saying some have higher status or lower status, but they are in their own respective places, and if they could do their

best to create the best benefits for the country, then that would be the optimal solution.

Michael J. Sandel So this argument seems to be winning more and more adherence. Who has another reply? Who objects to this argument? The argument that we've heard is that it will actually benefit Korean society more to use the talents of the pop star or the soccer player to raise millions to be used to help poor Koreans. What about that? That is an expression of citizenship too. What do you say?

Audience Member #17 Good afternoon professor. You have spoken of values in terms of market values and you talked about non-market values. The value that you mentioned that are realized by Rain, who is performing to earn revenue and contributing to the Korean government, is a market value. But the duty of serving in the military and protecting the nation is a non-market value. So if we are transitioning the non-market value to a market value, then those people who are actually going to the military will not be as committed because they will feel like they are not going to the military to protect the nation. They will feel that they are poor and

that is why they are going to the military. So, in that sense, can defensive power be stronger when the military servicemen are less committed to serve in the military? That is the question that I would like to ask that gentleman.

Michael J. Sandel Speak directly to him, because he seems to be swaying quite a lot of people, so here is your chance to persuade him. What do you say?

Audience Member #16 I am 19 years old and two years from now, I will be going to the military. I am not a soccer player. I am not a pop star like Rain. I am not going to be the 'Korean Idol' so I, of course, would have to go and serve my military duties. But, with the majority of people, I think it has to do with the fact that people are overly egotistical. Now what I mean by that is that you could feel relatively deprived because this other person is a very good singer so he doesn't have to go, but I have to go to the military and I have to suffer for two years so it seems unfair. But we need a change of mindset. Think of Rain. These are a very small number of talented people. Only a handful of people are this talented and they could use their capabilities to actually be more

beneficial to our country, and that benefit is going to come back to me because I am a citizen of this nation. So we are not all on the same status or same level. You will feel relatively deprived, but if you change your mindset, if you're a little more generous, I think that it would not be an issue.

Audience Member #17 I understand what you said. But what we are discussing is this: we are not talking about what is right or wrong; what we are talking about is how much people will be conceding, or be consenting, to a certain direction. I think it is up to us to make that norm. As you have mentioned, if you are richer, let's say you are a son of the Samsung Electronics CEO, let's say he donated 2 billion won and he buys a jet plane, of course that's going to be more helpful to our state than him coming to serve his military duties. But it is not something that we should make a judgment on, from the efficiency or utility perspective. As the professor said, there is non-market value and market value. So, from a long-term perspective, we have to think about Korea's national defense muscle. And we should not just give an exception to a small number of people. We have to have a broad mind and really have a high level of view on this so-

ciety and really think about the implication that judgment will have on our society as a whole. So giving exceptions to small number of people, giving privileges, I don't think it is adequate or appropriate.

Michael J. Sandel Thank you for a really great argument. Well done. What this last disagreement has brought out is an important feature of arguments, about markets, and where they belong. One argument that we heard says the public good, the common good, consists of the weighing or adding up of the various contributions, including monetary contributions. The competing argument says that we can't compare the value of all contributions in monetary terms alone.

The second argument says that there are certain values, non-market values, in this case civic identity and civic obligation, that can't be reduced to market terms or to monetary terms, and even if it is true that the poor of the society would benefit from having that money more than they would benefit from Rain's actual military service, that everyone is required to perform that service is an expression of shared citizenship as a non-market value.

So that is the debate we have heard, and that's the kind of debate that is necessary anytime we are trying to decide where market principles and money will serve the public good and where they may crowd out non-market values worth caring about. We've talked about many goods that money can't buy. We've also talked about many goods that money can but arguably shouldn't. And we've talked about the possibility that

sometimes markets change the character and meaning of the goods they exchange, sometimes by corroding or crowding out non-market values.

One important non-market value that markets and money threaten to erode these days in our societies is a certain civic good. Here is the risk. As money has come to buy more and



more in recent decades and as inequality between rich and poor has grown wider, there is a growing tendency—I certainly see it in my country and, I think, in many democracies; you will know better than I whether it is a risk in Korea—of the rich and the poor to live separate lives.

Increasingly, we find that there are fewer and fewer public occasions when people from different walks of life, different social classes, meet one another, encounter one another in the ordinary course of life, fewer class-mixing institutions. As money buys more and more at a time of growing inequality, we live and work and shop and play in different places. Rich and poor children go to different schools. And this poses a danger to our shared common life.

Democracy does not require perfect equality, but it does require that men and women from different backgrounds and different classes encounter one another in public places and learn to live with one another because this is how we learn to live with our differences, how to argue together, how to reason together, and how to respect one another. And so, the danger of a market society, the danger of putting everything

up for sale, is that we may find ourselves drifting apart, rather than sharing a common life.

And so, the question about markets is not in the end only an economic question. It's really a question about how we want to live together. What kind of society do we want to create? One of the impressive features of Korean public life, to me as a visitor in recent years, has been a growing debate about the meaning of a fair society. Now, not everyone agrees about what fairness means, not everyone has the same conception of a fair society but the fact that you in Korea are debating this question, as one of the central questions of politics, that is a healthy sign for democracy.

As we've seen here tonight, fairness is one reason to debate the role and reach of markets and money, but there is also the question, not only of the fair society, but of the good society and this goes to the second objection that some people raised: to the use of money in markets. Not only that, in some cases it can be unfair to the poor. If it's healthcare, for example, or access to education, some people said money and markets can also corrupt or erode the purpose, the higher purposes

of these goods, the higher motivation of reading for the love of it or, in this last discussion, the higher meaning of what it means to be a citizen.

So we've considered—we've discovered really—two different arguments for having a public debate, for questioning where markets serve the public good and where they don't belong. The Korean public was asked in the Asan survey whether they 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These days, money governs more of life and matters more than it should." Do you know what percentage of Koreans agreed with that statement? What do you think? 91 percent, and in the U.S. it was only slightly lower at 85 percent. So, there is a growing awareness that money matters more in our society than it should. But, what we have not yet seen in our public debates is a serious discussion of why money seems to matter more, and a serious debate about where markets and money belong and where they may threaten important other goods.

Tonight, we have begun that debate, and listening to the debate, listening to the arguments that we've had in this public place, I am deeply impressed, not only by the quality of the



arguments—I know you were all very smart when I came. I've been impressed by something else, by the spirit of the debate, by the spirit of mutual respect. Even where we had strong disagreements, people were listening to one another, were taking seriously the moral principles and arguments of one another. This gives me hope that we can elevate the terms of public discourse in democratic societies, in Korea, and I hope in my country, and in democracies around the world.

There is great frustration today, in almost every democracy, frustration about the low level, the low quality of public discourse. Too often, political parties and politicians, it seems, don't really address the questions that matter most, big questions about justice, and the common good, the role of markets, and what it means to be a citizen.

Tonight, you have offered, I think, a remarkable display, an impressive example, of what reasoned, respectful, vigorous, challenging public discourse can be. My hope is that what we here have done tonight will be the beginning and an example that can lift up the way we reason together in public life about big questions that matter. If that's true, then we here together

will have made a beginning toward renewing and reinvigorating democratic life and democratic citizenship itself, and for that, and for your hospitality, I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아산특별강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What Money Can't Buy

초판 1쇄 발행 2012년 7월 10일

지은이 마이클 샌델

옮긴이 아산정책연구원

펴낸곳 아산정책연구원

주소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76번지

등록 2010년 9월 27일 제 300-2010-122호

전화 02-730-5842

팩스 02-730-5876

이메일 info@asaninst.org

홈페이지 www.asaninst.org

편집 디자인 All Design Group

본문 사진 박정우

ISBN 978-89-97046-39-3 94340

978-89-965166-4-4 (set)

※ 이 책은 아산정책연구원이 저작권자와의 계약에 따라 발행한 것이므로
본원의 허락없이 어떠한 형태나 수단으로도 이 책의 내용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비매품

MICHAEL J. SANDEL

A S A N
S P E C I A L
L E C T U R E

비매품


아산정책연구원

